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3돐 경축 로농적위대 열병식 성대히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3돐 경축 로농적위대 열병식이 9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열병식이 거행될 김일성광장은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력하며 자립으로 번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광장에는 조선로동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 강위력한 민방위무력으로 자라난 각 도, 련합기업소들의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군위대총대들, 기계화총대들이 정렬해있었다.

애국가와 《조선로동당 만세》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로동당기가 게양되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날아올라 광장의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철석의 맹세를 안고 《김정일》, 《결사옹위》, 《일심단결》의 구호를 우렁차게 합창하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과 군대, 국가의 책임일꾼들, 당, 무력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군중, 병종 사령관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초대석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영웅들, 혁명렬사유가족들, 로력혁신자들, 근로자들이 나와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3돐 경축 재일본조선인총합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 방문단들, 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초대석에 자리를 잡고있었다.

초대석에는 주요 각국 외교대표들, 무관단성원들, 국제기구대표들, 외국손님들이 나와있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주악되고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열병식시작을 알리는 류량한 신호나팔소리가 울려



퍼지었다.

오일정 로농적위대 사령관이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열병부대들이 열병식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로농적위대 사령관은 열병총대들을 사열하면서 공화국창건 63돐을 축하하

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열병식을 시작하겠다는것을 보고하였다.

김영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

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3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로농적위대의 열병식은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우리의 공화국정권과 민족의 존엄을 총대로 굳건히 지키며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이 땅위에 거이 통일되고 융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힘있는 파시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일찌기 항일의 불길속에서 혁명적민간무력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고 전민항전으로 미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전후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농적위대를 창건하시고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튼튼히 확립해주시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첫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적군사사상과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인민방위무력건설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온 사회에 총대중시, 군사중시기풍이 차넘치게 하시고 로농적위대를 하나의 강력한 전투대로,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익측부대로 억세게 키우심으로써 우리 조국이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가 빛나게 실현된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위용펼치도록 하시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고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과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최대로 폭발시켜 2012년을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승리의 포성을 계속 높이 울림으로써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조선은 한다면 한다는것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적들의 무모한 새 전쟁도발책동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이 감히 신성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전체 인민이 총을 잡고 온 나라가 요새화된 선군조선의 위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우리의 생명이고 행복의 요람인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수호할것이며 침략의 본거지까지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2 면으로 계속)



